

# 李衡祥 牧使의 對佛政策

梁 重 海

目	次
I	序 論
II	李衡祥의 行狀
III	李衡祥의 廢佛論
IV	結 論

## I 序 論

濟州島의 傳統文化를 考察하려고 할 때 그 精神面에서 除外될 수 없는 課題의 하나가 巫俗과 佛敎에 關聯된 問題들일 것이다.

巫俗은 古代에서부터 傳承되어 온 原始信仰形態라고 할 수 있겠지만, 佛敎의 경우는 外來宗敎인 것이요, 特히 그 傳來 過程이 거의 同時代를 前後하여 高麗와 蒙古(元) 두 經路를 거쳐 濟州島의 上代社會, 곧 耽羅로 流入해왔다는 것은 濟州 佛敎의 特殊性의 하나로도 指摘할 수 있다.

이렇게 流入되고 土着한 耽羅의 佛敎도 麗代에 있어서는 雄壯을 極한 樣相으로 發展하였던 것이나, 그것이 崇儒排佛政策下의 李朝時代로 내려와서는 全國 어느 他地方과는 달리 가장 酷毒한 彈壓을 받았던 것이니, 濟州島의 佛敎는 李朝 肅宗朝를 前後하여 濟州島 到處에 있었던 巫神堂과 더불어 完全 毀撤되어버리는 悲運을 밟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文獻의 記錄으로나 民間傳承에 따르면 濟州島의 佛敎나 巫俗에 對한 超強硬 彈壓政策이 肅宗朝에 濟州牧使로 赴任해왔던 李衡祥의 行政的 治績으로 만 풀려지고 있음은 看過할 수 없는 問題라고 보아진다.

李衡祥 牧使는 李朝 肅宗 28年 壬午(西紀 1702年) 6월에 濟州牧使<sup>1)</sup>로 到任해왔다가 同 30년에 瓜滿으로 遞去한 人物이다.

李衡祥 牧使에 對해서는 그의 出身地의 名稱을 따서 「永川李牧使」로도 불리어지고 있거나와 李朝時代의 많은 濟州 牧使中에서도 이 李衡祥 牧使에 關해서는 수많은 話題가 傳해지고

1) 金錫翼, 耽羅紀年, 1918, p. 69

金斗奉, 耽羅誌(先生案), 1933, p. 44

있는 것이다.

그는 濟州 牧使 在任中 儒敎의 興盛과 陋習의 革罷에도 많은 治績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많은 治績中에서도 特記할만한 것으로는 全島의 巫神堂과 寺刹을 一時에 撤해버렸다는 事實이라는 것이다.

歴史的 趨勢로 봐서 우리 나라의 佛敎가 麗代에 있어서는 隆盛하였던 것이나, 李朝에 내려오면서는 歷代 君主가 崇儒排佛政策을 썼기 때문에 迫害를 免치 못하였었고, 따라서 衰退 一路를 걸지 않을 수도 없었다고 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면, 麗代에 있어서 그렇게도 隆盛을 極렸던 耽羅의 佛敎가 李朝 肅宗까지는 全弊를 免치 못했던 것도 李朝의 崇儒排佛政策으로 歸結지워버릴 것인가? 같은 崇儒排佛政策下에서도 陸地部에서는 많은 寺刹이 健在하고 있었는 데도 唯獨 濟州島에서만은 하나도 남김 없이 全弊되지 않을 수 없었음에는 濟州島의 佛敎에 어떤 內容의 特殊性이 있었다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알려지고있는 記錄과 民間 俗傳대로 果然 永川 李牧使의 個性的 所信에 依한 果敢한 廢佛政策의 結果였던 것일까?

本稿에서는 李衡祥 牧使의 廢佛論 是非를 가리기 위해 먼저 李衡祥 牧使의 對佛政策에 關聯이 있는 文獻 記錄을 調査하고, 다음에는 李衡祥이 濟州 牧使로 在任했던 時期의 王인 肅宗의 對佛 政策을 檢討할 것이며, 나아가 濟州 佛敎의 特徵과 李衡祥 牧使의 性格을 考察함으로써 濟州島의 廢佛이 어에서 起因한 것인가를 究明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文獻 記錄이나 民間傳承으로 濟州島 廢佛事件이 全히 李衡祥 牧使 個人的 行政의 處理에 起因한 것으로 되어있음에 비추어, 李衡祥 牧使의 思想과 行蹟에 對하여 追究하여 본다는 것은 濟州島 廢佛事件의 主役이 果然 李衡祥 牧使였겠느냐 하는 問題 解決을 爲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確信한다.

## Ⅱ 李衡祥의 行狀

李衡祥 牧使의 廢佛 政策 是非를 가리기 위한 補助的 資料의 하나로 그의 行狀을 먼저 考察함은 有益한 것으로 確信한다.

1974年 11月 27日, 濟州大學 附設 民俗博物館 主權로 李衡祥 牧使에 對한 研究發表會가 있었다. 그 모임에서는 曉星女大 權寧激 教授가 李衡祥이 濟州 牧使 在任中 編著한 것으로 되어

- 2) 李衡祥, 耽羅巡歷圖, 1702, 編著者가 濟州牧使로 赴任하고 初度巡視하는 狀況을 圖書로 表現한 것으로, 그의 10代宗孫 李秀昌이 所藏中임

있는 「耽羅巡歷圖」<sup>2)</sup> 와 南宦博物誌<sup>3)</sup> 에 對한 研究發表가 있었다. 이 모임에는 또한 李衡祥 牧使의 10代 宗孫 되는 李秀昌氏가 參席 「瓶窩 李衡祥 先生 行狀」이란 主題의 發表가 結 束되었던것이다.

李秀昌氏의 發表要旨는 다음과 같다.

### 가. 生涯와 官職

李衡祥은 孝宗 10年 (西紀 1659年) 5月 23日 仁川 陞巖村 (現 市內 석바우)에서 父 成均館 進士 柱厦와 母 坡平尹氏 (鶴山 尹貞立의 孫女)의 사이에 태어났다.

本은 全州, 孝寧大君 三世 淸渠守派 八代孫이며, 英祖 15年 (西紀 1739) 11月 30日, 81歲로 果川 旅舍에서 逝去하였다.

- |                   |  |
|-------------------|--|
| 顯宗 9年 (1668) 10歲  | 東史記講讀  |
| 〃 10年 (1669) 11歲  | 大司成講書 三百章註解  |
| 顯宗 13年 (1672) 14歲 | 司馬試合格  |
| 〃 14年 (1673) 15歲  | 別試第選 (永文院), 栗峯察訪, 湖西試所選  |
| 肅宗 10年 (1684)     | 副正字 (永文院 正九品)  |
| 〃 11年 (1685)      | 正字, 戶曹左郎   |
| 〃 12年 (1686)      | 戶曹正郎, 持憲, 廣州牧使   |
| 〃 13年 (1687)      | 星主牧使, 錦山郡守, 德裕山에 盜賊이 猖獗하자 朝廷에서 公을 擇하였으므로 赴任하였더니 盜賊이 모두 散去함   |
| 〃 16年 (1690)      | 淸州牧使   |
| 〃 17年 (1691)      | 東萊府使   |
| 〃 20年 (1694)      | 安州牧使, 「催論守禦策」 「江都誌」를 써서 朝廷에 바쳤다고 함   |
| 〃 25年 (1699)      | 羅州牧使, 慶州府尹, 雲住山에 土賊이 掠侵하려하니 木牌 一面에 「譏察」二字를 새겨 市場을 終日 周行하여 散賊시켰다 함. 鄉約을 고치고 忠·孝·烈을 獎勵하고 儒學 指導에 공을 기울였음.       |
| 〃 28年 (1902)      | 濟州牧使, 耽羅 陋習을 革罷하고 三邑의 儒學者를 뽑아 訓長으로 任命하였으며, 民의 教導에 盡力함. 三姓祠의 建立, 同姓婚의 禁, 多妻의 禁, 男女混浴의 禁, 神堂 129個處, 寺刹 2個處를 毀焚 |

3) 李衡祥, 南宦博物誌. 1703 濟州島의 百般事物에 關한 記錄으로 編著者의 10代宗孫 李秀昌이 所藏 中임

英祖 30年 (1704)	瓜滿으로 濟州를 떠날 때 白鹿潭에서 求한 참나무 거문고 (現存)와 詩草 數篇만 가지고 갔음
英祖 31年 (1705)	靈光郡守
英祖 32年 (1706)	浩然亭 (慶北永川郡城內 所在) 에 留함
英祖 34年 (1708)	慶源府使
英祖 36年 (1710)	判○事
英祖 3年 (1727)	戶曹參議拜하였으나 辭退, 浩然亭에 留함 이인좌亂이 일어났을 때 召募使 浩然亭에 隱居하며 「畏十要疏萬餘言草」「遜筮錄」著
英祖 4年 (1728)	嘉善大夫
英祖 14年 (1739)	逝去
正祖 20年 (1796)	清白吏에 錄遷
純祖 19年 (1819)	濟州 儒生 遺德追慕코 永惠祀 (五賢壇內) 에 追亭
英祖 20年 (1820)	濟州牧使 趙義纘 橋林祠 建立코 祭享

#### 나. 人物 · 性品 · 文章

##### (1) 大山 李象靖의 瓶窩文集跋文에서

李衡祥은 聰明하고 제주가 뛰어나, 어릴 때부터 남다른 바가 있었으며, 遠大한 抱負와 經倫, 그리고 強直한 氣概와 果敢한 性格은 말고 간 고을마다 좋은 治績을 남겼다.

##### (2) 蔡濟恭書 行狀記에서

肅宗 11年 冬至使가 가지고 가는 歲幣布가 報布보다 9尺이나 길므로 이를 끊어서 보냈다.

##### (3) 遊淸 李玄錫의 文에서

李衡祥의 詩文은 「洋洋大海波千頃 落落長松翠十尋…」이라고 했다.

#### 다. 禮 樂

李衡祥은 禮樂에 關한 家禮便考, 家禮附錄, 家禮圖說 등을 通하여 先祖之節에 따라 吉凶의 禮를 바로 잡았다. 그는 그의 文集에서 「曰禮樂不可偏勝則離故宋代禮教極盛至未蒙三方黨托朝 壽事煩文不習樂學…亦禮慘之弊也於是…樂學便考一卷」이라고 하고 있다.

그는 禮樂이 두루 併行하기를 주장 하였다.

#### 라. 爲 學 教 人

李衡祥은 中年時 性理學에 專心하였다. 항상 枕上에서 潛思, 晩年에 理固是是者大本也 氣亦

順順者違道也. 라고 하였고, 「四書三經講義」를 著書하여 後學에게 講義하였다.

### 마. 著 述

李衡祥은 數的으로나 質的으로나 방대한 著書를 남겼으니 數百卷에 이르는 그의 著書中 重要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瓶窩集 (奎章閣發刊)
- (2) 樂學便考
- (3) 瓶窩歌曲集
- (4) 耽羅巡歷圖 (濟州牧使赴任 初度巡視한 狀況을 圖書로 表現한 것)
- (5) 南宮博物誌 (濟州島에 關한 百般事物)
- (6) 耽羅狀啓
- (7) 江都誌
- (8) 家禮便考

### 바. 濟州牧使 在任時의 治績

- (1) 三邑의 文廟 修理 儒生과 地方 子弟에게 學問을 課하다.
- (2) 三姓祠 建立 (嘉樂泉東)
- (3) 淫祠 129個處 佛宇 2個處 燒却
- (4) 風雨雷雨壇祭의 官行을 禁止
- (5) 同姓同本間의 婚姻 嚴禁과 弊習의 教化
- (6) 濟州島에 關한 많은 著述

以上은 李秀昌氏의 發表 內容의 骨子이다.

李衡祥의 行蹟에 關한 上述 內容中 生涯와 官職에 있어서의 年代나 年歲에 있어서는 多少 차질이 없지 않을 可能性이 엿보이나, 그에 關한 確認은 後考로미루기로하고, 餘他의 內容은 他文獻資料와 對照해 보고도 거의 符合되는 內容들이다.

이 行蹟으로 본다면 李衡祥은 傳統的인 儒家에서 태어나서 年少한 나이로 司馬試에 合格함으로써 그의 뛰어난 才能을 誇示하고 있고, 出仕하면서는 牧使, 郡守, 府使등 主로 外職을 歷任하였거니와, 그가 이르는 고을마다 儒教의 根本精神인 忠孝烈을 強調 獎勵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積弊를 一朝에 撤廢하는 등 많은 善政을 베풀었으며, 그의 強直한 氣概와 果敢한 性格은 널리 알려짐으로써 盜賊이 猖獗하였던 고을에도 그가 이르기만 하면 모두 散去하였다 하니 그의 性品과 더불어 強直 果敢한 一面도 알만하다.

그의 中年 時節에는 性理學에 專心 沒頭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모든 傳來의 陋習을

革罷하는데 있어서의 思想的 根據를 暗示해주고 있으며, 特히 濟州 牧使 在任時의 治績을 말 할 때에 傳來의 巫佛 風土 위에서 積弊를 一掃하고 儒學 儒教를 振作하는데도 그의 타고난 性格에서 오는 強直 果敢한 施策이 遂行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의 이러한 強直하고 果敢한 施策은 對佛政策에 關해서도 여러가지의 애피소오드와 贊反의 批判을 同伴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 Ⅱ 李衡祥의 廢佛論

### 가. 廢佛政策에 關한 記錄

麗代의 耽羅에는 水精寺, 法華寺등의 巨刹을 비롯 大小 寺刹이 島內 到處에 세워져 耽羅 佛敎는 자못 그 隆盛을 極하였었음은 오늘에 남아있는 水精寺 法華寺등의 遺跡을 보고도 充分히 알 수 있다.

高麗에 뒤이은 李氏朝鮮은 建國初부터 崇儒排佛政策을 썼기때문에 이 섬의 佛敎도 漸次 衰退의 길을 밟지 않을 수 없었으나 李衡祥이 本島 牧使로 赴任해왔던 肅宗 28年 壬午(1702)보다 半世紀前까지는 多數의 寺刹이 있었음은 孝宗 4年 癸巳(1653)에 이루어진 李元鎮의 耽羅 志의 記錄으로도 알 수 있다.

李元鎮編 耽羅志에 記載되어있는 寺刹名을 보면 다음과 같다.

尊者庵	在漢拏山
月溪寺	在愛浦東南
水精寺	在朝貢川西岸
妙蓮寺	在州西南二十里
文殊庵	在州西南二十七里
海輪寺	一名西資福在州西大愛浦口
萬壽寺	一名東資福在連入浦東岸上
江臨寺	在州東威德浦口
普門寺	在州東三十里
逝川庵	在朝貢川上
小林寺	在州東南十里
觀音寺	在朝天浦上
安心寺	在州東十里

郭支寺	在州西四十五里 今廢
頓水庵	在州東八十里
元堂寺	在州東二十里
	(筆者注;以上 濟州牧) <sup>4)</sup>
靈泉寺	在靈泉川東岸
成佛庵	在成佛岳
	(筆者注;以上 旌義縣) <sup>5)</sup>
尊者庵	在漢拏山
法華寺	在縣東四十五里 今廢
窟 庵	在山房山
	(筆者注;以上 大靜縣) <sup>6)</sup>

위와같이 濟州牧에 16寺, 旌義縣에 2寺, 大靜縣에 3寺가 耽羅志 三邑 各 佛宇條에 登載되고 있다. 漢拏山の 尊者庵은 濟州牧과 大靜縣 兩쪽에 重復 收錄하고 있다. 이래서 濟州 三邑의 寺刹은 20寺刹이 되는 것이다.

當時의 寺刹數가 이것이 全部인지 或이면 그 規模로 보나 內容으로 봐서 登載할만한 것이 못 된 것은 登載를 漏았는지 모르지만 何如間 20個의 寺刹名이 있고, 이 寺刹中 西紀 1653年 現在 이미 廢撤되어 있던 寺刹도 3寺가 있었으니 그것은 愛浦의 月溪寺, 郭支의 郭支寺, 그리고 中文面 河源의 法華寺 등이다.

이들 寺刹들을 中心으로해서 생각할 때, 高麗時代에 盛烈던 濟州島의 佛敎는 李朝의 建國과 더불어 崇儒抑佛政策에 依하여 다시 發展의 길은 막혔다 하더라도 李朝建國 260年 後인 孝宗 4年 (1653)까지는 그래도 水精寺를 비롯 17個 寺刹만은 있었던 것인데, 그 後 不過 50年 後인 肅宗 28年 (1702)에 와서는 이것이 全廢되었다는 것이다.

金斗奉編 耽羅誌, 佛宇條에도 前記 李元續編 耽羅志 佛宇條에 收錄되고 있는 寺刹名을 그 대로 싣고 그 寺刹名마다 「今廢라」 하고 있음을 본다. 뿐만 아니라 그 寺刹名을 收錄하면서 다음과 같은 說明을 붙이고 있음을 본다.

牧使李衡祥時並爲撤罷而

係是島中古迹故依舊錄之<sup>7)</sup>

즉 李元續編 耽羅志에 싣고 있던 寺刹들은 그 50年 後에 李衡祥 牧使에 依하여 그 全部가 撤罷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4) 李元續, 耽羅志(濟州牧 佛宇條), 1653, p. 42

5) Ibid.,(旌義縣 佛宇條) p. 66

6) Ibid.,(大靜縣 佛宇條) p. 75

7) 金斗奉, Op. cit., p. 47

金斗奉編 耽羅誌에는 風俗條에도 「尙淫祀」라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紹介되고 있는바

俗尙淫祀 乃於山菽川池丘陵墳衍木石俱設神祀 每歲元日至上元 巫覡共擊神蠶作雜戲 爭鼓前導 出入閭閻 爭捐錢穀而祭之 又於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木竿十二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飾以綵帛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 乃罷 謂之燃燈 是月 禁乘船 又於春秋 男女群聚 廣壤堂遮蹄堂具酒肉祭神 又地多蛇蝎 蜈蚣若見灰色蛇則以爲遮蹄之神 禁不殺 風土錄 酷崇祠鬼 男巫甚多嚇人灾禍取財如土 名日期望七七日 必殺牲爲淫祠

肅朝壬午 牧使李衡祥並撤淫祠及寺刹 其風自此少至 8)

金斗奉編 耽羅誌의 이 記錄은 東國輿地勝覽 東國歲時記, 耽羅紀年등의 記錄을 綜合 轉載한 것으로 尙淫祠의 濟州島風俗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여기 引用한 까닭은 그 記錄의 末尾에 「肅朝壬午 牧使李衡祥並撤淫祠及寺刹」을 보이고자 함이다. 즉 여기에서도 李衡祥 牧使는 淫祠와 더불어 寺刹을 撤廢하였음을 記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記錄들은 「永川李牧使가 堂五百 寺五百을 毀焚한 牧使이다.」라는 民間 傳承의 이야기와 同軌의 文獻의 記錄이 되겠으나, 果然 牧使 李衡祥이 이렇게도 苛酷한 廢佛政策을 썼겠느냐 하는 問題를 究明하기에 앞서, 李衡祥이 濟州牧使로 赴任하였을 당시의 朝廷에서의 對佛政策은 어떤 것이었느냐를 먼저 考察해보고자 한다.

濟州牧使 李衡祥의 對佛政策은 李衡祥 自身の 獨自의 信念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朝廷에서 보낸 方伯으로서 그 對佛政策에는 朝廷의 政策이 그대로 實現으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나. 肅宗의 對佛政策

濟州島의 淫祠와 佛宇를 全廢시킨 牧使라고 傳해지고 있는 李衡祥은 肅宗 28年 壬午에 濟州牧使로 赴任하고 同 30年 瓜滿으로 濟州를 떠난 牧使이다. 李朝의 歷代王中 李衡祥이 濟州牧使로 赴任하였을 當時의 肅宗은 李朝의 다른 歷代王과 比較 그 對佛政對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李朝一代가 大體로 봐서 崇儒抑佛政策을 쓴 것은 事實이지만 實質의인 排佛은 太宗朝 以後의 일이며, 그 中에서도 特히 對佛 強硬策을 쓴 王으로는 成宗, 燕山君, 中宗, 顯宗, 英祖등 諸王을 指摘할 수 있다.

歷代王中에는 世祖처럼 釋氏의 道가 孔子의 道보다 훌륭하다고 하여 大興佛寺한 王도 있다. 9)

그런데 李衡祥이 濟州牧使로 赴任했던 時期의 肅宗은 어떠했을까? 이에 對하여 史家 李相

8) Ibid., pp. 4~5

9) 李相伯, 韓國史 近世後期篇, (慶壇學會)서울, 乙酉文化社, 1961, p. 290

伯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肅宗은 前王의 對佛強硬策을 多少 緩和하여 同王 三十三年에 서울 附近의 津寬寺를 再建 하였다. 同寺 寺蹟記에 依하면 津寬寺는 國初에는 王宮水陸社로서 名利이었는데 寺運이 기울어지고 廢寺되다시피 한 것을, 이 때에 英祖의 生母인 崔淑嬪의 昭寧園을 이 곳에 들으로써 再建하게 된 것이다.

三十七年에는 北漢山城 築營이 議決되고 또 山城內에 重興寺, 龍巖寺, 輔國寺, 普光寺, 扶旺寺, 元覺寺, 國寧寺, 祥雲寺, 西巖寺, 太古寺, 鎮國寺등을 鎮護의 靈刹兼 僧營으로 하고 僧徒를 輪番制로 入營케하여 讀經 練武토록 하였다.<sup>10)</sup>

이러한 記錄으로 본다면 肅宗은 決코 對佛強硬策을 行한 王이 아니다. 오히려 李朝 歷代王 中 佛敎에 對해서는 가장 寬大했던 王에 屬할 뿐 아니다. 廢寺를 再建하여 鎮護의 靈刹을 새로 指定하고, 僧徒를 輪番制로 入營시키는등 佛敎를 擁護하고 復興시키는 施策을 쓴 王이다. 同王 28年에 오직 濟州島에서만은 모든 佛宇가 하나 남김 없이 毀焚 撤廢되었음은 決코 朝廷의 施策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濟州島 佛敎의 土俗性

濟州島 佛敎의 全廢 原因을 濟州島 佛敎의 內容의 特異性에서 指摘하는 學者도 있다.

李衡祥 牧使가 濟州牧使로 赴任하자마자 全島 到處에 있는 수많은 淫祠를 하나 남김없이 毀焚하여버렸다 함은 李衡祥 스스로도 自述 記錄으로 남겨놓고 있지만 濟州島의 佛敎가 甚히 土俗性을 띠고 있어 거의 巫俗과 區別될 수 없을만큼 되어있었기에 그는 佛宇를 淫祠와 同一視하여 淫祠를 毀焚하면서 함께 廢撤해버렸다는 主張이다.

李衡祥 牧使의 佛宇 毀焚 事實에 對하여 玄容駿 教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장 甚한 탄압을 받은 것은 肅宗때의 李衡祥 牧使에게 었으니

「肅宗壬午二十八年 清康熙四十一年 牧使李衡祥 毀焚三邑佛宇 百三十餘所」

「牧使李衡祥 廣壇堂毀焚 三邑淫祠 百三十餘所 杖巫覡四百餘名使各歸農」

佛宇 130餘所를 毀焚시켰다 하니, 그 數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이 때에 濟州島의 佛寺는 거의 파괴되고, 佛敎는 絶滅狀態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本稿에서 注意하려는 점은 이 130餘個所의 佛宇를 한 편에서는 「淫祠」라 하여 巫俗의 神堂처럼 기록하여 놓았고 또 巫覡 400餘人을 杖刑을 加하고 歸農시켰다고 기록하여 놓은 점이다. 佛宇=淫祠라 되어있는 것은 牧使 李衡祥이 佛寺와 巫神堂을 同一한 것으로 보아 파괴한 것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그것을 記錄한 者도 亦是 兩者를 同一視하여 記錄한 것임

10) Ibid., p. 481

을 말해준다. 李朝의 政策이 아무리 排佛崇儒에 있다 해도 李朝의 王宮內에서는 佛敎를 끊이지 않았고, 國家의 事業으로 佛經諺解등 事業을 해온 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他道에서 種類例를 찾을 수 없이 全島의 佛宇를 巫神堂과 함께 모조리 불질러버린 이 事件은 단지 牧使 李衡祥의 排佛政策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意味가 있었으리라 본다. 그것은 行政家인 李衡祥의 눈에 佛敎와 巫俗은 同一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요, 그 記錄者나 一般人에게도 兩者가 同一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現在는 濟州島의 심방(巫覡) 들은 巫俗을 佛敎에서 나온 것이라고들 말한다. 이 말은 上代에 濟州의 巫俗과 佛敎는 그만큼 가까운 것이었음을 말하는 말이 된다. 結局, 濟州島의 佛敎는 李朝時代까지 巫俗과 分別이 不分明한 狀態로 土俗性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牧使가 淫祠(巫神堂)와 同一視하여 불질러버린 것이다.<sup>11)</sup>

玄容駿 教授의 叙述 內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1) 李衡祥 牧使의 佛宇 毀焚은 李朝의 排佛政策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 (2) 李衡祥 牧使는 濟州島의 佛敎와 巫俗을, 그리고 佛敎와 巫神堂을 똑 같이 淫祠로 본 것이다.
- (3) 濟州島의 佛敎는 甚히 土俗性을 띠고 있었다.

玄 教授의 이와 같은 推定은 佛宇 毀焚과 關聯된 肅宗朝 當時의 濟州島의 佛敎를 規定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卓見함을 看取할 수 있다. 곧 濟州島의 佛敎는 甚히 土俗性을 띠고 있어서 佛敎 本來의 모습은 크게 褪色되고 巫俗과 確然히 區別지을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는 말이 거니와 이는 耽羅時代에 이 섬에 佛敎가 傳來될 當時의 風土와 與件, 그리고 오늘에 아직도 盛行하고 있는 巫俗 속의 佛敎의 色彩, 濟州 佛敎 속의 巫俗의 殘滓, 등을 考慮할 때 充分히 首肯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上述 所論 가운데서, 李衡祥의 佛宇 毀焚의 動機를 推定키 위한 「佛宇=淫祠」의 方程式을 導出해내는데 있어서는 어떤 先入感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文獻 記錄 引用面에 있어서 連斷을 하고 있는 듯 함을 指摘하지 않고 넘길 수는 없는 것 같다.

즉, 「佛宇=淫祠」를 誘導하는 典據로서 耽羅紀年の 記錄이라 하여

「肅宗壬午二十八年 淸康熙四十一年 牧使李衡祥 毀焚三邑佛宇百三十餘所」

「牧使李衡祥 廣壤堂毀焚 三邑淫祠百三十餘所 杖巫覡四百餘名使各歸農」

이렇게 引用하고 있거니와, 이 記錄이 事實이라면 「三邑佛宇百三十餘所=三邑淫祠百三十餘所」가 되므로 「佛宇=淫祠」의 方程式은 쉽게 이루어질 것임은 다시 말 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耽羅紀年の 原文은

肅宗壬午二十八年淸康熙四十一年牧使李衡祥移建乙那廟於嘉樂川東以三高氏從享

11) 玄容駿, 佛敎民俗 (韓國民俗綜合報告書), 文公部文化財管理局, 1974. p. 160

○撤廣壤堂毀焚三邑淫祠佛宇百三十餘所杖巫覡四百餘名使歸農<sup>12)</sup>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玄 教授의 陳述中 「佛宇 130餘所를 毀焚시켰다. 하니 그 數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을과 동시에…」라는 말은 수정되어져야 할 것임은 勿論, 그 「130餘所」라함은 「佛宇十淫祠」인 것임도 알 수 있다.

그가 毀焚한 佛宇와 淫祠에 對해서는 앞에서 提示한 바 있는 「李衡祥 牧使의 行狀」中 「濟州 牧使 在任時의 治績」을 말하는 대목에 「淫祠 129個處 佛宇 2個處 燒却」이란 內容이 보이거니와 그가 自著한 南宦博物誌에서도 그는

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燒燼<sup>13)</sup>

州城東有萬壽寺西有海輪寺…即毀兩寺移建公解<sup>14)</sup>

이라 하였으니 그가 燒燼 毀撤한 淫祠와 佛宇에 關해서는 佛宇와 淫祠를 따로 따로 하여 그 數를 밝히고 있음을 본다.

즉, 그가 燒燼하였거나 毀撤한 淫祠와 佛宇는 淫祠가 129個處, 佛宇가 2個處, 都合 131個處가 自述 數字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淫祠나 佛宇의 燒燼 毀撤의 動機에 對해서는 南宦博物誌에서 밝히고 있거니와 이 問題에 關해서는 後項으로 미루기로 한다.

要는 耽羅紀年의 記錄단을 놓고 李衡祥의 佛宇 燒却의 動機를 考察할 때, 반드시 「佛宇 = 淫祠」의 方程式이 成立된다는 것은 아니나 그 當時의 이 섬의 佛敎는 甚히 土俗性을 띠고 있어 어느 一面 巫俗과 거의 同一視 되리만큼 接近되어 있었을 것이요, 性理學에도 心醉한 바 있는 儒學者 李衡祥의 눈에는 佛宇와 巫神堂을 같은 것으로 보였을 것임도 推測할 수 있다. 다만 李衡祥은 佛宇는 2個處만 毀撤하였음을 自述하고 있고 그 動機에 對해서도 充分한 理由를 들고 있으니 그것은 次項에서 言及하고자 한다.

#### 다. 李衡祥의 思想과 行蹟

李衡祥의 廢佛論을 云謂하기에 앞서 그의 思想과 行蹟을 考察해보기로 한다. 앞에서 陳述한 「李衡祥의 行狀」에서는 그의 十代孫 李秀昌氏의 發表 內容을 引用하여 두었거니와, 그의 行狀錄에서 그의 思想과 性格을 暗示해 주고 있는 바를 摘示해 본다.

(1) 11歲에 大司成講書 三百章을 註解.

(2) 14歲에 司馬試 合格.

(3) 錦山郡守時 德裕山에 盜賊이 猖獗하니 朝廷에서 李衡祥을 擇하여 赴任시키자 盜賊이 散去하였음.

12) 金錫翼, Op. cit., p. 69

13) 李衡祥, 南宦博物志 (誌俗錄), 1703

14) Loc. Cit.

(4) 慶州府尹時 雲往山에 土賊이 掠侵하려하자 李衡祥이 木牌에 「譏察」이라 二字를 새겨 終日 市場을 周行하였다더니 土賊들이 散去하였고, 鄉約을 고쳐 忠·孝·烈을 獎勵하고 儒學을 일으킴.

(5) 濟州牧使時 耽羅 陋習을 革罷하고 三邑 儒學者를 뽑아 訓長으로 任命하였으며, 同姓婚과 一夫多妻, 그리고 男女混浴을 禁하였음. 神堂 129個處, 寺刹 2個處를 毀焚 또는 撤罷하였으며, 瓜滿으로 돌아갈 때는 白鹿潭에서 求한 참나무로 단든 거문고와 詩草 數篇만 가지고 떠남.

(6) 遠大한 抱負와 經倫, 強直한 氣慨와 果敢한 性格云云.

(7) 肅宗 11年 冬至使가 가지고 가는 歲幣布가 報布보다 9尺이 길므로 이를 끊어서 보냈음.

(8) 中年時 性理學에 專心하였고 항상 枕上에서 沈思하였음.

以上과 같은 斷片的인 記錄들은 李衡祥 牧使의 片貌를 말해주는 것이 되겠지만, 이로 본다면 그는 典型的인 儒教風土에서 成長하였고 性理學에 깊이 專念했던 文官으로서, 그 性格은 強直하고 氣慨가 果敢하여, 不義를 剔抉하는데는 寸步도 後退할 수 없는 爲人임을 말해 주고 있다.

李衡祥 牧使는 三邑의 佛宇와 淫祠 130餘所를 毀撤하고도 耽羅의 開國說話로써 由緒가 길은 三乙那廟에 對해서는 格別한 配慮를 하였던 것이므로 지금 三姓祠 境內에는 그의 功績碑가 세워져있는 것이다.

그가 任地 濟州에서 濟州 土豪인 三姓 氏族의 祖上으로 傳해지고 있는 三乙那에 對한 配慮는 行政 技術上으로도 意義가 있을뿐 아니라, 祖上崇拜라는 李朝 國是인 儒教의 教理에도 一致하는 것이 된다.

李衡祥 牧使는 三姓祠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立廟宇於東京赫居世專享 瞻像設於南漢溫祚爲祠 豈獨一島土論溯其義而興感抑亦三邑民志所本而盡誠 是所謂始祖廟邦開孰不曰六偉歌當唱...<sup>15)</sup>

곧 三乙那廟를 邦建함은 新羅 始祖 赫居世나 百濟 始祖 溫祚를 위하여 立廟 奉祀하는 것과 同一한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三姓祠, 곧 三乙那廟의 立廟 奉祀의 뜻은 어디까지나 祖上崇拜라는 儒教의 教理에 立脚한 것이지 三姓 始祖인 三乙那가 三姓穴에서 從地湧出하였다는 高麗史 古記 및 東國輿地勝覽의 記錄 乃至는 民間에 傳承되고 있는 三姓神話를 믿는 것은 아니었다.

三姓始祖의 從地湧出說에 對해서는

15) 李衡祥, 三姓祠上梁文

夫豈有石穴生人之理乎 孔子刪詩書斷自唐虞蓋以己會以萬世道鴻荒之史所錄 不可盡信也<sup>16)</sup>

高麗古記之隨聞隨錄者亦不足深責也 每逢父老以理論之曰 數寸之穴 寧可生人既云也 地湧則何分兄弟 既爲兄弟則何爲三姓 石函三妹若自日本則日本亦人也<sup>17)</sup>

李衡祥은 어디까지나 事實에 立脚하여 事物을 觀察하고 思考하는 學者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乙那의 從地湧出說에 對해서도 어찌 數寸의 石穴에서 사람이 湧出하겠는가? 땅에서 나왔다면 어찌 兄弟가 되며, 兄弟일편면 어찌 三姓이라 할 수 있는가? 配匹인 三姉妹는 日本으로부터 왔다 하였은즉 日本에서 왔다는 것도 亦是 사람이 아닌가? 이와 같이 李衡祥은 三姓神話를 理解함에 있어서도 神話 건너편에 있는 또 하나의 意義를 追求하려 하지 않고 事實을 事實대로 解釋하려는 科學主義的인 觀點에서 三姓神話를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그로 하여금 三乙那廟를 三姓穴의 位置에서 大膽하게 嘉樂川東으로 移建하도록 만든 것이다.

壬午二十八年清康熙四十一年牧使李衡祥移建三乙那廟於嘉樂川東以三高氏從享<sup>18)</sup>

三姓祠在東城內肅宗壬午牧使李衡祥翔建良高夫三乙那廟配享以高厚高清高季正宗乙巳因州人梁擎天上言賜額當片辛未毀撤<sup>19)</sup>

李衡祥은 三乙那의 從地湧出說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三乙那廟를 誕降 聖地인 三姓穴에서 멀리 떨어진 嘉樂川東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三乙那廟를 옮기는데는 두가지의 理由가 있었음을 看破할 수 있다. 그 첫째의 理由로

嘉靖年間牧使李壽童築石墻周二百八十餘尺立紅門於穴北三姓子孫春秋致祀今則三穴皆塞荆棘蕪沒但見三石鼎立其下微陷而廣壤神祠在其東徒爲巫覡鞀鼓之場<sup>20)</sup>

即 三姓穴의 實情은 「三穴皆塞荆棘蕪沒」의 荒廢한 地境이 되었을뿐 아니라 淫祠인 廣壤堂이 그 바로 東쪽에 있어서 「巫覡鞀鼓之場」이 되어버렸으니 가장 神聖하여야 할 三乙那廟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첫째의 理由이다.

그러나 이 理由만이라면 淫祠와 佛宇 130餘所를 能히 燒却할 수 있었던 李衡祥으로서는 이 問題는 解決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또 하나의 큰 理由가 따로 있었다.

16) 李衡祥, 南宦博物誌(誌古條), 1703

17) Loc. Cit.

18) 金錫翼, Op. cit. p. 69

19) 金斗奉, Op. cit. p. 43

20) 李衡祥, 南宦博物誌(誌古條), 1703

그는 三乙那廟를 聖域化해 가면서도 三乙那가 從地湧出하였다는 三姓神話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移建하고 다른 實在했던 人物을 從享할 수 있는 길을 더놓고자 했던 內心的인 意圖가 있었던 것임을 看取할 수 있다.

三姓穴은 三姓始祖가 誕降하신 聖地이기 때문에 三姓始祖 以外的 그 누구를 奉享할 理由도 없고 奉享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이 三姓穴을 떠나버리면 그러한 制限 條件이란 있을 수 없다.

李衡祥은 三乙那廟를 옮기면서 耽羅가 新羅로 內附하는데 有功한 三高氏를 從享함으로써 三乙那廟의 奉祀와 致祭를 現實的인 觀念과 接近시키려 했던 것이다. 즉, 三乙那廟를 嘉樂川 東으로 移建, 三高氏인 高厚 高淸, 그리고 그 季를 從享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高齡屹如其宮翼如其○作主依神正位先後曰良曰高與夫並列若其配享曲有禮意有諱厚淸爰及其季一時內附萬世永奠...<sup>21)</sup>

即今島民合力之廟以良乙那高乙那夫乙那爲主壁以高厚淸及季爲配享以爲春秋享祀之計島中人民無非三姓子孫島民之立廟情禮即然而彼皆享國之人揆以邦憲不當埋沒且高厚淸及其季始朝新羅仍爲內附於版籍當特褒以星主王子之號...<sup>22)</sup>

곧, 上古時代 以來 獨立된 部族國家였던 耽羅는 高厚, 高淸 及 그 季가 新羅에 入朝 羅朝에 서는 三高氏에게 各各 星主, 王子, 徒內라는 爵號를 주고 돌려 보냄으로써 耽羅는 新羅를 섬기게 되었고, 그 뒤부터는 번갈아가며 百濟 高麗를 섬기게 되었던 것인데, 李衡祥은 三乙那廟를 嘉樂川 東으로 移建하면서 이 三高氏의 新羅 內附의 功은 萬世 永奠할만 한 일이라 하여 從享시켰던 것이다.

이런 面으로 보면 李衡祥은 巫神堂은 勿論, 神話 傳說이나 또한 佛敎까지도 믿지 못하는 性格으로 어디까지나 事實에 立脚하여 思考하고 行動하는 自然科學的 世界觀 乃至 人生觀을 가진 人物이었던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

이러한 世界觀, 人生觀, 宗教觀을 가진 그였기에 大膽하게 淫祠와 佛宇를 燒却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記錄中에는 李衡祥 牧使의 淫祠 毀焚事件은 多分히 李衡祥 自身の 個人的 感情의 所致임을 暗示해 주는 듯한 記錄을 찾아볼 수 있음도 興味로운 일이다. 곧

山房路邊有淫祠曰廣靜堂過者不下馬則馬蹇李衡祥巡行至此吏白下馬不敢馬果蹇陶衡祥親到其堂使巫刑馬以祭求見其神妖蟒出現毒醫司命旗竿遂斬之燒其堂自此淫祠遂絕<sup>23)</sup>

21) 李衡祥, 三姓廟奉安祭文 (10代孫 李秀昌 所藏)

22) 李衡祥, 南宮博物誌(誌祠條), 1703

23) 金錫翼, Op. cit., p. 69

이 記錄은 廣靜堂 毀撤을 說明하는 記錄이다.

李衡祥 牧使 自身이 廣靜堂 앞을 通過하는데, 下馬하지 않고 通過하게 되면 말이 밧을 절 것이라고 側近이 말함에도 不拘하고 下馬하지 않고 通過하다가 果然 말 밧이 절므로 巫堂을 시켜 말을 犧牲시켜 祭를 지었더니 마침내 妖蟒이 出現하는지라 이를 斬殺하고 그 神堂을 불살아버렸으니 이로부터 淫祠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李衡祥 牧使가 타고 가던 말 밧이 절었다는 것이 廣靜堂 燒却의 動機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島內의 많은 淫祠를 毀撤하는 契機가 되었다면, 이 말 밧이 절었던 事件은 強直 果敢한 李衡祥으로 하여금 淫祠 全廢의 果斷性 있는 施策을 敢行하게 했던 하나의 契機가 되었던 것으로도 보아진다.

그러나 이 廣靜堂 事件이 全島 淫祠燒却에로 進展하게 되었던 契機가 되었다고 推定된다 하더라도 이 李衡祥의 淫祠 撤廢한 行政 行爲는 牧使로서 百姓을 위한 當然한 使命이라 생각하였고 그것은 그의 굳은 信念이었음을 看過할 수 없다.

耽羅紀年에서는 그의 行蹟을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李衡祥果敢正直務大體民懷之立以德化民碑全豐植曰昔薛存義嘗毀鼻亭神祠而君子益爲稱善况撤蛇妖木柅之數百淫祠者乎千載之下使人痛快<sup>24)</sup>

按爲民除害官所務也若李衡祥其可謂知所務矣昔狄仁傑巡撫河南奏毀吳楚淫祠千七百所在推夏禹泰伯季子伍員四祠而已胡穎經略廣東毀佛像而殺妖蛇所過淫祠必焚之以脫患俗此萬代之所瞻仰也然皆所遇不司非衡祥之南人并舉一時之比也嗚呼可尙也哉<sup>25)</sup>

곧, 李衡祥 牧使가 많은 淫祠를 撤廢하고 그 弊害를 除去함은 島民을 위한 官의 所務임은 當然한 일로되 이는 千載에 痛快한 일이고, 또한 可尙할만한 일이라고 讚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李衡祥은 俗傳에는 「堂五百 寺五百」을 燒却해버린 牧使로 되어 있고 耽羅紀年에도 佛宇와 淫祠 130餘所를 毀焚하였다고 되어 있을뿐 아니라, 金斗奉編 耽羅誌에서도 李元鎮編 耽羅志에 있는 寺刹名을 그대로 옮겨놓고는 「牧使李衡祥時並爲撤廢」라 하여 三邑 寺刹全部를 李衡祥이 撤廢한 것인양 記錄하고 있으나, 李衡祥이 果然 그렇게 強硬한 廢佛政策을 썼겠느냐? 이 開題에 關聯된 그 自身の 記錄을 더듬어보면 다음과 같다.

…廣壤遮歸等淫祠簫鼓不絕土人敬畏如天凡一家大小事必先祈禱于此處然後敢行正初則迎神入城謂之神遊村人爭出衣服以施之又曰村人臨老得病彌留危苦者其子女處誠祈禱若不可廖願鬼速令就死母爲久苦如此者咸稱孝誠此善蠻風之未盡變者云今則去去益甚甚至於掠奪牛馬田莊雜聚行淫

24) Ibid., p. 66

25) Loc. Cit.

比前尤加 余又狀啓略曰巫覡輩惑誣之習自是天下萬古所共有之痛弊言亦無益而至於本島尤有別馬既無上下名分又無義理所識故家家設位處處立祠崇奉之習比內服倍百彼所謂男覡女巫揚揚○氣使無賴之輩稱以堂漢互相結契其數過千或討食於閭閻或屠牛於神堂村民之留置綿布及紬段者初以鬼祟狀之若不出施則稱以鬼差發送堂漢結縛掠奪甚至於奪其牛馬其數近百人至於奪其田畝各自分食或稱位田或稱捨施田…似此風習他邑所無各自燒火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及私家禱神之物路傍叢林之處巫覡輩神衣神織一並燒燼甚至於掘木根毀佛像今無一物留在三邑守令連續稟報…累千年痼習一朝掃盡<sup>26)</sup>

여기에서는 全島의 巫神堂 129處를 비롯 私家에 있는 禱神과 關聯되는 물건 巫覡의 神衣 등 일체를 燒燼하게 된 내력을 말하고 있다.

즉, 巫覡輩의 惑誣之習, 行悖 弊端을 말하고, 然故로 이러한 巫神堂으로하여 일어나는 累千年 痼習을 除去하기 위하여 이를 一時에 燒燼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佛宇 燒却에 關해서는

寺刹基址在於三邑者甚多地誌風土錄南樵錄皆曰有僧無尼而即今島中元無僧尼寺刹亦皆撤罷州城東有萬壽寺西有海輪寺各有佛像常時無典守者自里中定一人看護且於四名日相聚禮佛而已余謂漸不可長即毀兩寺移建公廡大靜境惟一尊者庵只是草屋數間亦無居僧但於別星上山時宿息而已舉一島五百里幅員今無寺刹佛像僧尼亦無念佛者可謂佛道之戾<sup>27)</sup>

이 記錄에 依하면 李衡祥 牧使 以前에 이미 佛宇는 거의 毀撤이 되어있기에 全島 三邑에는 寺刹 基址가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僧尼가 없는 寺刹은 모두 撤罷되다가 萬壽寺와 海輪寺가 남아 있는데, 이 두 寺刹도 제각기 佛像은 있지만 僧尼가 없으므로 이 兩寺를 毀撤하였다는 것이다. 또 大靜境에도 오직 尊者庵이라는 數間 草屋 庵子가 하나 있기는하나 亦是 居僧은 없고 上山 時의 宿息處 구실을 하고 있다 함이다. 따라서 五百里 幅員 濟州島에는 지금 寺刹도 佛像도 僧尼도 念佛者도 없으니 可謂 佛道의 災難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記錄으로 본다면 李衡祥 牧使가 全島의 淫祠를 毀焚한 것은 事實이지만 佛宇를 毀撤한 것은 아니다. 佛宇는 李衡祥 牧使 以前에 이미 모두 毀撤되다가 3寺만이 남아 있는데 그 3寺中 上山 宿息處가 되고있는 無僧 草屋인 尊者庵은 그대로 두고 亦是 無僧尼의 寺刹인 萬壽寺와 海輪寺만은 毀撤했다는 것이다.

이 세 寺刹名을 李元續編 耽羅志에서 찾아본다면

萬壽寺 一名東資福在建入浦東岸上

26) 李衡祥, 南宮博物誌(誌俗條) 1703

27) Loc. Cit.

海輪寺 一名西資福在州西大甕浦口

尊者庵 在漢拏山<sup>28)</sup>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萬壽寺 海輪寺의 다른 이름인 東資福 西資福은 資福彌勒인 石像과 더불어 오늘에도 남아 있다.

이 東西-兩資福의 信仰形態는 아직도 佛敎的이라기보다는 巫俗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資福彌勒 石像中 東資福은 島內의 어느 翁仲石보다도 큰 最大의 石像으로서 建物은 없다. 西資福도 建物은 없이 雨露에 씻기는 資福彌勒 石像뿐이었던 것인데, 最近, 이 바로 가까이 자그마한 寺刹이 지어지면서 이 石像위에도 構築物을 세워 雨露를 가리워 놓고 있다.

李衡祥 牧使보다 50年前에 이루어진 李元鎮編 耽羅志에 이미 東資福 西資福의 名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李衡祥이 毀撤하였노라는 두 寺刹은 元來부터 巫俗의 性格이 두들어진 寺刹이었던 것이기에 李衡祥 以前에 모든 寺刹은 毀撤되었으면서도 이 兩寺는 끈질기게 남아 있었고, 李衡祥이 廢撤하였음에도 오늘까지도 남아있다고도 보아진다.

李衡祥은 儒敎主義의 人生觀과 科學主義의 思考方式을 아울러 가진 爲人으로서 祖上崇拜를 勸獎하고 實踐케 하는 具體的인 方法의 하나로서 濟州島 開闢始祖인 三乙那를 奉祀케 하기 위하여 三姓祠를 지으면서도, 어찌 人間이 地中 石穴에서 나오겠느냐는 疑問을 그대로 넘기지 않고 三姓祠를 三姓穴에서 嘉樂川東으로 옮겨세우면서, 耽羅가 新羅에 內附하는데 有功했던 三高氏를 配享토록한 것이다. 이러한 爲人이었기에 民弊가 많은 淫祠를 그대로 두어둘 수가 없다 하여 全島의 神堂을 남김 없이 毀焚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果敢한 行政의 處理속에는 地方行政家로서 百姓을 위하여 積弊를 除去하는데는 조금도 讓步할 수 없다는 굳은 信念으로 充滿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人生觀과 信念의 行政家로서 全島의 淫祠를 남김 없이 毀焚하였으면서도, 多分히 巫俗的이고도 無僧尼의 萬壽寺와 海輪寺 以外の 佛宇를 毀撤하였거나 燒却하였다는 事實을 찾아볼 수 없다.

## IV 結 論

麗代의 耽羅에는 水精寺 法華寺등의 巨刹을 비롯 全島 到處에 寺刹이 建立되어 있어 耽羅 佛敎는 크게 興隆하고 있었음은 文獻과 遺物을 通하여 알 수 있다.

28) 李元鎮, Op. cit., p. 42

이렇게 盛하였던 耽羅의 佛敎가 李朝 肅宗을 前後한 十八世紀初에 접어들면서는 全廢되고 말았다.

道民의 口傳은 그 原因을 肅宗 28年에 赴任해왔던 李衡祥 牧使의 史上 未曾有의 苛酷한 廢佛政策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金錫翼編 耽羅紀年이나 金斗奉編 耽羅誌 등 몇몇 文獻과 最近의 學者의 몇몇 論文에서도 이와같이 記錄하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果然 濟州 牧使 李衡祥이 이처럼 苛酷한 廢佛政策을 썼단 말일까? 썼다면 그것은 어떤 動機에서였을까? 이를 究明하기 위하여 人間 李衡祥의 個人的 行狀을 먼저 알아보고, 廢佛論을 내세우는 文獻이나 論文도 살펴보았으며, 李衡祥 牧使 在任 當時의 王인 肅宗의 對佛政策, 濟州 佛敎의 土俗性, 그리고 李衡祥의 思想과 行蹟등을 檢討한 셈이다.

肅宗 28年에 濟州 牧使로 赴任해왔던 李衡祥은 強直 果敢한 性格의 所有者로서 濟州로 赴任해오자마자 積弊를 一掃하고 風俗을 순화시켰으며 儒學을 진흥시키는데 큰 治績을 남겼다.

그는 全島의 神堂을 129處나 毀焚하였다고 하였고 無僧尼의 萬壽寺와 海輪寺 등 2寺도 毀撤하였노라 하였으니 이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리고 李衡祥이 毀撤하였노라고 自述하고 있는 萬壽寺와 海輪寺는 그 다른 이름인 東資福 西資福으로 資福彌勒과 더불어 오늘에도 남아 있거니와, 이 東西資福에 對한 信仰形態는 아직도 佛敎의 이라기보다는 巫俗의 이다.

그렇다면 李元鎮 牧使가 耽羅志를 엮을 때에 있었다는 水精寺를 비롯한 17個處의 寺刹은 李衡祥 牧使 以前 50年 사이에 이미 毀撤되어 있었다는 말이 되거니와 이에 關한 考察은 別稿로 이루기로 한다.

이로써 口傳上으로나 一部の 文獻記錄까지도 濟州島의 그 수많은 佛宇가 李衡祥 牧使의 苛酷한 廢佛政策 乃至는 淫祠와 佛宇를 同一視함으로써 招來된 淫祠毀焚에 휘말려 全廢되었다는 主張은 再考되어야 할 것이라고 確信한다.

## — Summary —

## Buddhism Policy of Governor, Lee Hyungsang

by Yang Chung-hac

When we study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eju-do, one of the tasks from which we can't except in the spiritual aspects is the religion problem.

We can understand through the sundry records that Shamanism, one of the primitive religious has been prosperous in the ancient society of Cheju-do. Besides, the new religion (Buddhism) has joined the society.

Buddhism which had handed down to Cheju-do in Koryo Dynasty was in full flourish with the grand Buddhist temple. This was entirely vanished till the reign of Lee Dynasty King Sug-Jong.

Tradition says that Buddhism of Cheju-do was vanished because of the harsh oppression measure of Lee Hyung-sang who had newly appointed governor of Cheju-do during the reign of Lee Dynasty King Sug-Jong.

But through the study we can know that all temples of Cheju-do have already vanished before proceeding to governor of Cheju.

It is true that governor, Lee Hyung-sang has fired all temples across Cheju-do on the plea of evils in Cheju-doian's life and prohibited Shamanism but record and tradition that he had severely suppressed Buddhism and fired all temples must be amended.